부처님 닮아가는 불자의 삶

세계불교법왕청 우꾸마라 법왕 비서실장 대승정 목탁



금년 부처님오신날은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모든 중생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앞서며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봉축법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성취 했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만족하고 살고 있나로 얻어집니다.
부처님의 불제자로 불자 한사람 한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이뤄집니다.
자신의 거짓된 허상을 참회하고 아상과 아집을 놓아버리고 매사 긍정과 감사의 맘으로 넓은 세상을 봅시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생의 길 함께 하자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코로나19는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물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으로 물든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은 생멸하는 중생계의 실상이니, 오직 인간들의 지혜로운 용기와 타인과 자연에 대한 자비심만이 두려움과 어두움의 폭풍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길로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지구촌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환란이 속히 종식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 드립니다.

세계 팬데믹의 종식을 기원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개개인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 요즘, 신뇨엔은 코로나19 종식과 모든 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떠올릴 단 하나의 믿음. 바로 '南無眞如' 입니다.
'眞如' 란 지혜와 자비, 삼보의 공덕을 담은 구제의 힘이자, 귀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깃드는 마음의 빛입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감염병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힘은 '지혜' 이며, 국경이 닫혀 왕래가 끊겨도 배려심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 돕는 것이 '자비' 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갑시다.

일체중생 지혜로 태어나고 자비로 축복 입은 날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마다 귀를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날이요, 하나하나 실천하면 곳곳이 대자대비의 화엄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사실은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무분별한 삶이 만들어 낸 질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찬란한 연등이 시대의 고통을 소멸하는 지혜의 빛으로 타오르고, 우리가 세우는 불퇴전의 세월이 탐진치 삼악도를 물리치는 대자대비의 행원이 되길 바랍니다.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굳게 뭉쳐야"

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집 · 편견 · 과욕에 의한 갈등 · 불화 · 자멸의 고통과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비와 평등 그리고 화합하는 부처님 마음이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오늘날 국내는 물론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는 병마는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불러온 크나큰 죄업으로 자신들의 탐욕에 물들어 운명공동체로 하나로 돌아감을 망각한 채 저지른 죄업임을 깊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스스로도 보살행을 실천해 가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도록 발원합니다

부처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 고통서 벗어나길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부처님오신날을 원융종 전 종도와 함께 봉축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불자와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밝힌 연등의 공덕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 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서원하며, 나와 가족을 넘어 지구촌 모든 생명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집착 버려야 법성 만난다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끝없는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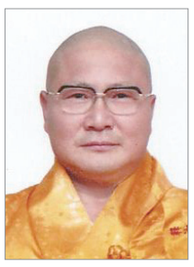
(사)한국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우리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애의 공간속에 해탈의 삶 살자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우리 사문들은 이제 걸림 없는 해탈의 삶을 경작하자.
사문들이 시대적 불교의 진아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안일과 영락을 위해 현실과 야합한다면 수행자의 실상을 누가 사표로 삼을것인가?
사물들이 인간에게 애정을 보내고 삶에 집착할 때 본래 회귀란 공념불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사문들은 자기가 지닌 애착과 번뇌의 녹성을 버리고 고통에 물들지 않는 자재인으로 청정무구한 진여의 삶을 경작하자

천천히 가더라도 보살이 되소서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것
보리심을 갖는것
복을 얻고자 하는것
보살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다 사람을 사랑 하기 위해서 입니다.
무진등, 나 하나의 등불로 빛이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시다.
건강하십시요. 성취하십시요.
천천히 가더라도 보살이 되소서.

이땅위에 정토실현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불기 2564년 4월초8일은 부처님께서 어두운 세상 밝히고 모든 생명 건지고자 이 땅 위에 오신 성스러운 날입니다. 다같이 등불 밝혀 봉축하고, 거룩하신 가르침 봉행하여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본래 청정했던 참 마음 되 찾고 자비로운 마음이 시방세계에 하얀 연꽃처럼 피어나 다시는 더럽혀 지지 않는 불국정토가 이 땅 위에 실현 되여 감염병(코로나)을 극복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존경하고 서로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본래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경자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마음의 번뇌를 버립시다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며, 어떠한 날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 우리 사바세계의 삶도 때로는 힘들기도 평탄하기도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며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하듯이 번뇌에 찌들은 마음을 깨끗이 경자년에 닦아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등불 밝히면서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라
영원토 록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년년 광명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지혜와 자비로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리 추구하며 참되게 삽시다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전대행 총무원장 청파



이기와 독선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나' 만의 이익을 탐하고 안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과 아상은 다른 이를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불자로서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웃과 나누며 함께 하는 세상을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 여느 해와 다를 것 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받들고 배우는 이유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받는 생로병사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 위함이니 현재의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기만의 이기적인 삶으로 일류공동체로 다 같이 사는 삶을 망각한 현재의 업보일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익을 버리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고 다같이 극복합시다.

부처님 오신날은 영원한 오늘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우리에게 귀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운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인연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 '오신날' 이라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마음의 귀의처로 안식처로 중생심이 살아지고 자성신의 불성에 귀의하는 것이 됨으로써 곧 스스로 자비광명 비추는 축복일 것입니다.
언제나 부처님 오신날로 영원한 오늘입니다~

지극한 믿음과 마음으로

(사)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이 중생의 마음으로는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한 듯한 작금의 상황이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하게 되고 내 가족은 물론 인연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내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공부이며 수행이라 여기 십시요.
단지 부처님께 의지하려고만 했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 지극한 믿음과 마음으로 귀의하고 정성을 올리는 것이 곧 부처님 자비의 빛이 스스로 발현되는 것입니다.